이재 조우인의 매호 복거와 〈매호별곡(梅湖別曲)〉의 창작의식

신현웅*

Ⅰ. 들어가기
Ⅱ. 매호 복거와 작품 창작 배경
Ⅲ. <매호별곡>에 나타난 매호에서의 삶
1. 매호 복거에 대한 설렘과 호기 표출
2. 매호 생활에 대한 소회와 다짐 술회
Ⅳ. <매호별곡>에 내재한 창작의식
Ⅴ. 나가기

<국문초록>

본고의 목적은 이재(頤齋) 조우인(曺友仁, 1561~1625)의 가사 작품 <매호별곡>(梅湖別曲)의 창작의식을 규명하는 데에 있다. <매호별곡>(梅湖別曲)은 경상북도 상주 매호에 복거하면서 느낀 설렘과 그 생활에 대한 소회를 노래한 작품이다. 여기에 내재한 창작의식을 규명하기 위해 그간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자료를 폭넓게 취하여 조우인의 매호 복거와 생활의 실상에 접근하면서, 작품 해석이 전기적 사실에 견인되지 않도록 작품론의 관점에서 <매호별곡>의 구성과 내용을 자세히 분석했다. 그 결과 다음의 네 가지 성과를 내었다.

첫째, 조우인의 매호 이주 시기가 54세 전후로 밝혀졌다. 이주 상한선은 가깝게는 1615년, 멀게는 1613년이며 하한선은 1616년이었다. 그 결과 모든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강사

www.kci.go.kr

선행연구에서 이주 시기로 본 1623년은 인조반정 후 낙향 시기임이 밝혀져 창작의식에 접근하는 데에 새로운 시각이 마련되었다. 창작의식을 규명하면서 <매호별곡>의 창작 시기가 1620년 이전이라는 잠정적 결론에도 이르렀다.

둘째, 작품론의 관점에서 <매호별곡>이 정연한 짜임을 갖추고 시상이 유기적으로 전개되는 작품으로 밝혀졌다. 작품은 서사, 본사1(전단: 9행, 후단: 33행), 본사2(전단: 7행, 후단: 35행), 결사로 구분되었다. 42행으로 길이가 동일한 본사1과 본사2에서 예비적 진술 성격을 띠는 전단은 짧게, 상대적으로 구체적 진술을 담은 후단은 길게 하여 시상 전개 방식이 유사하게 운용되었다.

셋째, <매호별곡>은 설렘, 기대, 반추, 다짐이라는 일련의 시상이 전개되는 가운데, 본사1에 잠재된 불우의식이 본사2에서 간간이 표출되고 있는 작품이었다. 화자의 내면에 자리한, 이러한 복잡한 마음이 여러 전기적 사실을 통해 벼슬살이에 대한 불만, 집안 내력에 대한 위축된 심리 등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이 규명되었다.

마지막으로, 화자가 성찰과 반추를 거쳤음에도 결사에 이르러 앞날에 대해 부정(不定)한 태도를 취하고, 결사가 1행의 결어로 이루어진, 완정하지 않은 구성을 갖추고 있는 점이 해명되었다. 매호정사가 건립된 후에 창작한 칠언율시 <호사가 새로 완성되어 보내드리다>(湖舍新成寄呈)와 <매호별곡>의 의식을 비교한 결과, 그것은 조우인이 성찰을 통해 이전의 삶을 '迷'라는 어휘로 범주화했지만 앞으로의 삶은 아직 '不迷'로 범주화하지 못한 시점에 <매호별곡>을 창작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창작의식은 조우인에게 가사가 고민과 성찰의 과정에서 마음을 정리하는 장르로 인식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핵심어: 17세기, 가사, 불우의식, 영남, 상주, 남인.

www.kci.go.kr

Ⅰ. 들어가기

이재(頤齋) 조우인(曺友仁, 1561~1625)은 선조조에 벼슬을 시작해 광해조에 두 번의 시화를 겪은 남인 문인이다. 한번은 오언절구 <형제암>(兄弟巖)이 영창대군의 옥사를 암시한 작품이라는 이유로 1617년에 경성 판관에서 체직(遞職)된다. 이 일은 비교적 가볍게 넘어갔지만 1621년 음력 7월 경운궁에 입직했을 때 지은 칠언절구 <제분사승지청벽>(題分司承旨廳壁)과 칠언배율 <직분사기소견>(直分司記所見)이 인목대비 유폐를 풍자하고 있다는 죄목으로 겪은 두 번째 시화에서는 고초를 겪는다. 예순의 노년에 만 1년 남짓 국문(鞫問)을 받고, 이듬해 9월 7일에 보방(保放)되었다가, 1623년에 인조반정이 일어나 석방된다. 광해조의 시화 사건은 오래도록 회자되어 조우인은 불의를 참지 못하고 옳은 말을 하는, 강직한 인물의 대표가 된다.

평범하지 않은 행적도 주목을 끌지만 그는 5편이라는 적지 않은 가사 작품을 창작하여 작품이 수록된 필사본 『간례』(間禮)[1]와 『이재영언』(頤齋詠言)[2]이 발굴된 이래로 가사 문학사에서 주목을 받았다.[3] 현재 <매호별곡>(梅湖別曲), <자도ᄉᆞ>(自悼詞), <튤ᄉᆡ곡>(出塞曲), <관동쇽별곡>(關

1) 고경식, 「매호별곡과 자도사」, 『자유문학』 49(제6권 4호), 한국자유문학자협회, 1961, 247~251면; 「關東續別曲」, 『경희문선』,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62, 142~144면.
2) 김영만, 「조우인의 가사집 「이재영언」」, 『어문학』 10, 한국어문학회, 1963, 78~97면.
3) 고경식, 「조이재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3.
고경식, 「관서별곡과 출관사」, 『국어국문학』 36, 국어국문학회, 1967.
고경식, 「송강과 조이재의 관계」, 『국어국문학』 64, 국어국문학회, 1974.
한석수, 「조우인의 가사연구」, 『논문집』 20, 상주농잠전문대, 1981.
김기탁, 「매호별곡의 자연배경고」, 『한민족어문학』 22, 한민족어문학회, 1992.
김기탁, 「<매호별곡>의 서경성」, 『모산학보』 4·5, 동아인문학회, 1993.
정태형, 「이재 歌辭 硏究 松江歌辭와 比較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구영완, 「정송강과 조이재 가사문학 연구」,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김기영, 「이재 조우인의 관동쇽별곡 연구」, 『어문연구』 30, 어문연구학회, 1998.
최규수, 「<출새곡>과 <속관동(별)곡>의 작품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 『온지논총』 5, 온지학회, 1999.
박억만, 「이재 조우인 가사문학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강경호, 「이재 조우인의 가사문학 연구」, 『영주어문』 11, 영주어문학회, 2000.
김봉선, 「이재 조우인 시가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이재준, 「이재 조우인의 가사에 나타난 공간인식과 그 의미」, 『우리어문연구』 42, 우리어문학회, 2012.

www.kci.go.kr

東續別曲, 이칭: 속관동별곡), 네 편만 전하고 <출관사>(出關詞)는 실전(失傳)한다. 이 가운데 창작하게 된 경위와 배경을 알 수 있는, 서문(序文)과 제후(題後)가 전하는 <출관사>[4]와 <관동속별곡>[5]이 조우인 가사 작품 연구의 중심에 놓였다. 아울러 광해조 말년의 모진 고문을 겪은 후에 창작했을 것이 명백한 <자도사>가 그 뒤를 이었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매호별곡>은 상기 작품들에 비해 소홀히 다루어졌다. 첫째, <매호별곡>에서 진술되는 승경 예찬과 그 속에서의 삶, 그것에 대한 시적 화자의 태도가 '16세기 강호가사의' 그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분석되었기[6] 때문이다. 둘째, 매호에서 조용한 삶을 지내고자 하는 화자의 형상이 인조반정이 일어나 석방되어 매호로 낙향한 뒤에 작품을 창

4) 조우인은 백광홍의 <관서별곡>을 염두에 두고 1606년 공무로 의주를 다녀온 경험을 제재로 삼아 <출관사>를 창작했다. "예전에 사문(斯文) 백광홍이 관서 막부의 평사가 되었을 때, 우리말로 장가 한 편을 지었으니 사람들이 이르는 <관서별곡>이라는 것이 이것이다. 지금까지 노래를 잘 부르는 자들이 그것을 전하여 외어 부른다. 노랫말의 운치가 호매(豪邁)하며 마음 씀이 표일(飄逸)하니 가히 그 사람의 사람됨을 헤아려 볼 수 있겠다. (중략) 이어 <출관사> 한 편을 창작했다. 무려 수 백 언이나 되는데 대개 말의 뜻은 백광홍의 노랫말에서 나고 들었지만 뒤집에 쓴 것도 역시 많다. 다만 백광홍의 노랫말은 안흥에서 살수를 건너 철옹을 들러 적유령을 거쳐 강계에 이르러 압록에 연안을 따라 수강성을 거쳐 황제묘를 지나 용만에 이르렀지만, 나는 다만 북으로 바른 길을 따라 갔다"(昔白斯文光弘, 爲關西幕評, 以俚辭製長歌一篇, 世所謂<關西別曲>者是也. 至今善謳者, 傳誦而歌之. 詞致豪邁, 用意飄逸, 可以想見其爲人. (中略) 續作<出關詞>一篇. 無慮數百言, 大抵語意, 出入白詞而反之者亦多. 但白詞則自安興渡薩水, 由鐵甕歷狄踰嶺抵江界, 沿鴨綠經受降城, 過皇帝墓, 以達于龍灣, 而余則但從直路而行). 조우인, <제출관사후>(題出關詞後), 『이재집』 권2, 38장 뒷면~39장 앞면(한국문집총간 속12집, 302~303면).

5) 조우인은 정철의 <관동별곡>에 감명을 받아 자신의 관동 유람을 제재로 삼아 <관동속별곡>을 창작했다. "우연히 정송강의 <관동별곡>이라는 것을 얻어 그것을 보니, 비단 노랫말의 운치가 준일(俊逸)할 뿐만 아니라 절주(節奏)가 원만하고 밝을 따름이었다. 말 마디마디 수천 마디가 감분(感憤), 격앙(激昂)의 심사를 남김없이 쏟아내니 진실로 걸작이라. 반복하여 음영할수록 사람으로 하여금 부럽게 하는 것이 그치지 않는다. (중략) 예전에 발과 눈으로 거친 것들을 기억하여 장가 한 편을 지어 이름하여 '속관동곡'이라 했다. 그 안에 정송강이 상세히 말한 바는 왕왕 빼고 넣지 않았으니, 대개 물색이 분명히 남아 있는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偶得鄭松江 <關東別曲>者而觀之, 非但詞致俊逸, 節奏圓亮而已. 縷縷數千百言, 寫盡感憤激昂之懷, 眞傑作也. 反覆吟詠, 益令人歆艷之無已也. (中略) 記往日足目之所經過者, 作長歌一篇, 而名之曰: '續關東曲'. 其間鄭詞之所詳道者, 則往往刪而不入, 盖以物色之分留者不多故也). 조우인, <속관동곡서>(續關東曲序), 위의 문집, 33장 앞면~뒷면(위의 영인본, 300면).

6) 박연호, 「장르론적 측면에서 본 17세기 강호가사의 추이」, 『어문논집』 4, 민족어문학회, 2002, 172면.
박이정, 「17세기 전반기 가사 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37면.

www.kci.go.kr

작했으리라 추정되는, 작가의 전기적 사실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해되기 때문이다. 작품에 대한 이러한 시각으로 인해 이제껏 모든 선행연구에서는 <매호별곡>을 은일치사자(隱逸致仕者)의 강호가사로 간주해 왔다.

본고의 문제의식은 <매호별곡>이 정말 은일치사자의 심정이 담긴 작품인가 하는 물음에서 시작한다. 환갑에 이르러 정강이뼈가 부서질 정도의 옥고를 치른 후에 현실 정치를 단념하고 강호에 편안하게 거주하고자 치사(致仕)한, 작가의 전기적 상황을 고려할 때, 시적 화자가 강호 자연에 몰입하지 못하고 현실 문제에 대한 소회를 진술하며 말미에 이르러서도 세속을 응시하는 시선이 쉽게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1623년 생애 말년으로 으레 믿어온 매호 은거와 관련된 전기적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적 화자는 매호를 복거지로 정한 후 초당을 지어 거주를 갓 시작한다. 조선전기 사대부의 강호가사에서 시적 화자의 상황은 작가의 그것과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만약 조우인이 더 이른 시기에 매호에 거주하기 시작했다면, 작품의 해석뿐만 아니라 작가에게 지니는 작품의 의미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조우인의 매호 복거와 관련해 이미 알려진 자료를 포함해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하여[7] 그 실상에 한걸음 더 가까이 접근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매호별곡>을 좀 더 깊게 이해해 보고자 할 것이다. 이로 인해 그의 생애 가운데 <매호별곡>이 지니고 의미가 밝혀지리라 기대된다.

II. 매호 복거와 작품 창작 배경

조우인은 퇴우당 조계형(曺繼衡, 1470~1518)의 증손으로 아버지 조몽신(曺夢臣)과 어머니 평산 신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창녕이며, 호는 이재(頤齋)·현남(峴南)·매호(梅湖)·매악산인(梅岳山人)·청로(聽鑪)이다. 경상북도 예천군 노포리 외가에서 태어나[8] 증조부 이래 거주하던 함창

7) 실록 기록, 작품의 서발문, 택당 이식이 지은 <택풍당기문발>과 조우인의 묘지명·병서를 제외한 1차 자료 대부분을 조우인과 관련해 본고에서 처음으로 다룬다.

(咸昌)에서 살았다.[9] 조우인은 이곳에 적어도 1601년(41세)까지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10]

1588년 진사시 합격 이후부터 1605년 문과에 합격하기까지 뚜렷하게 알려진 행적은 없다. 이를 막연하게 임진왜란의 영향으로만 추측해 왔는데,[11] 그가 임진왜란이 발발한 이듬해 1593년에 창의군이 되어 전투에 참가했다는 점[12]에서 일견 추측이 가능하다. 그런데 임진왜란 때문에 당시의 행적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기만은 어렵다. 왜냐하면 1594년에 부친상을 당하여 삼년상으로 치르고,[13] 삼년상이 끝나고 몇 해 지나지 않은 1598년

8) "공께서는 가정(嘉靖) 신유년(1561, 명종 16) 모월 모일에 예천군(醴泉郡) 노포리(蘆浦里)에서 태어나셨다. 열흘쯤 지나 모친께서 돌아가시어 외조모의 손에서 자라나셨다"(公以嘉靖辛酉某月日, 生于醴泉郡 蘆浦里, 踰旬而慈氏卒, 育于外王母). 이식, <우부승지매호조공묘지명병서>(右副承旨梅湖曹公墓誌銘 幷序). 『택당선생별집』 권6, 43장 앞면(한국문집총간 88집, 372면). 이하 『택당집』 소재 시문 번역은 고전번역원의 (역주) 『택당집』(澤堂集)을 참고해 일부 수정했다.

9) 5대조까지의 묘는 창녕에 있으나 고조 조순(曺珣) 이래로 함창 율곡(栗谷)에 묘가 마련된다. 조규철 편, 『창녕조씨취원당파보』, 1980, 오봉서당, 75~76면.

10) 1588년 사마방목에 거주지가 함창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함창향교에서 1607년에 작성한 『향안』("點爲曺友仁"), 1748년에 작성한 『향안』("曺友仁, 文科, 承旨)에도 조우인의 이름이 모두 기록되어 있어, 그가 외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을 뿐 함창을 근거지로 삼아 생활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후 조우인은 1601년에 서울에서 벼슬하는 영남 남인 27인의 '동도계'(同道契)에 함창 출신으로 참여했다.
"幼學曺友仁 汝益, 辛酉, 本昌寧, 居咸昌. 父展力副尉夢臣, 具慶下. 雁行, 弟純仁". 『만력 16년 무자 2월 24일사마방목』(萬曆十六年戊子二月二十四日司馬榜目)(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고문서집성(古文書集成) - 부안 부안김씨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宣敎郎濟用監參奉, 曺友仁汝益, 顧齋, 咸昌". 이호민(李好閔), <장악원계첩>(掌樂院契帖), 오극성(吳克成), 『문월당선생문집』(問月堂先生文集) 별부록(別附錄), 4장 뒷면(한국문집총간 속10집, 530면).

11) 황동권, 「이재 조우인의 삶과 현실인식」, 『제118차 대동한문학회 전국학술회의, 2016년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대동한문학회, 2016, 100면.

12) "諸義士曺友仁, 進士". 김면, <임진창의시동고록>(壬辰倡義時同苦錄), 『송암선생유고』(松菴先生遺稿) 권2, 22장 앞면(한국문집총간 속5집, 131면).
"(癸巳 二月) 初九日. 令衛將進陣于賀老金山地. 又令軍官七員往助戰所. 巡相軍官四員亦偕往醴泉. 進士曺友仁, 白伸等, 持義兵成冊來獻". 김면, <창의사적>(倡義事蹟), 위의 문집, 6장 앞면(위의 영인본, 123면).

13) 부친상을 당한 이듬해 삼년상을 치르며 지은 칠언율시 <을미년(1595) 제석에 이의보, 이극휴에게 써서 보이다>(乙未歲除日, 書示李儀甫、李克休)는 제석을 맞아 무정한 시간을 한탄하는 제석시의 전형을 따르지만, 함련에 나이가 들며 일과 마음이 맞지 않아 괴로우면서도 몸도 병약해지는 것을 한탄하는 심정이 담겨 있다("事與心違衰轉甚/病隨年積藥難攻"). 양친을 다 여의고 자식도 없이 부부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마흔을 바라보고 있는 슬픔이 느껴진다. 조우인, 앞의 문집 권1, 23장 뒷면(앞의 영인본, 255면).

에 아들 조정융(曺挺融)이 태어나는 등 집안에 큰 경조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정융이 후처와의 소생이기 때문에 앞서 전처의 상례도 치렀을 것이다. 이후 1600년에 이르면 진사시 합격 이후 제수 받은 한미한 제용감 참봉 벼슬마저도 파직당한다.

1603년에 조우인은 예천에 거주하며 영천 이씨의 우계서당(迂溪書堂) 강회(講會)에 참여한다.[14] 이듬해 늦봄 안동 부사로 재직하던 홍이상(洪履祥, 1549~1615)은 조우인의 『매호축』(梅湖軸)에 실린 오언율시에 차운한 <조여익의 『매호축』 중에서 차운하다>(次曺汝益友仁梅湖軸中韻)를 읊는다.[15] 이 시의 수련과 함련 "형세가 빼어난 양양땅에/자네가 집 한 채 지었다 들었소/노승을 빙자해 경영하고/신공을 허비해 결구했구료"(形勝襄陽地/聞君卜一宮/經營憑老釋/結搆費新功)에서 조우인이 예천에 집 한 채를 새로 지은 것을 알 수 있다. 예천집은 단순히 함창과 예천을 오가며 잠시간 기거하기 위한 집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예천읍내에서 서쪽으로 10리 정도 떨어진 현산(峴山) 남쪽에 살았다는 기록[16]을 근거로, 조우인이 1603년경에 함창에서 예천으로 이주했다고 추론된다. 조우인에게 예천 이주는 상대적인 도회지로의 진출뿐만이 아니라 함창 생활의 매듭과 새로운 출발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1605년에 문과에 급제한다.

매호와 관련해 홍이상의 차운시 제목이 주목된다. 차운시의 대상이 된 원시는 예천에 집을 새롭게 지은 내용을 제재로 삼았을 텐데, 그 시가 '양양축'도 아닌 '매호축'에 실려 있었다. 예천 읍내는 매호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매호는 예천의 속현 다인현과 상주 사벌면 사이를 흐르는 낙동강에 대한 명칭이다. 예천집이 매호에서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것을 『매호축』에 실었다는 것은 조우인이 『매호축』을 제작했을 당시 '매호'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싯적부터 산수유람을 좋아했던 그는[17] 함창과 예천 인근의 문경, 상주 등을 두루 다니며 일찍이 매호를 눈여

14) 조우인은 계묘(癸卯, 1610) 맹춘(孟春)에 강회에 참여했는데 당시의 거주지가 예천으로 기록되어 있다(『迂溪書堂講會錄』, 한국국학진흥원, 1장 앞면).

15) 홍이상, 『모당집』(慕堂集) 상(한국문집총간 속6집, 414면).

16) "고을 관청의 동서 각 10리 즈음에 작은 절이 있는데, 그 서쪽에 있는 것을 '서암'이라 부른다. (중략) 아버지께서 예전에 그 남쪽에 사시며 '현남'을 자호로 삼으셨다"(郡治之東西各十里許, 有小蘭若, 其在西者, 曰: '西菴'. (中略) 先君子, 嘗居其南, 自號峴南). 조정융, <예천서암중창기>(醴泉西菴重創記), 『호옹유고』(湖翁遺稿) 권3(한국국학진흥원 영인본, 461~462면).

겨 살펴본 듯하다.[18]

> 관북(關北)의 막부(幕府)에 있을 때에 반라(半刺, 여기에서는 판관)인 조여익(曺汝益)과 자리를 함께하고 있다가 우연히 이야기하던 중에 이(택풍당, 역자 주)에 대해서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그 역시 상주(尙州)의 매호(梅湖)에 터를 잡고 살았다. 멀리 떠돌아다니게 된 한스러움을 함께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으므로, 일찍 돌아가는 대로 각자 상대방 집의 기문을 지어서 낭박(浪泊)과 서리(西里)의 생각을 잊지 말자고 서로 약속하였다. 열흘 뒤에 내가 먼저 돌아왔고, 이듬해에는 그도 파면되어 매호로 돌아갔다.[19]

이식과의 교유와 경성 판관 경력을 논할 때 자주 인용되는 자료로 이식이 지은 <택풍당기문발>(澤風堂記文跋)이다. 이 자료는 매호라는 장소와 관련해 그간 주목받지 못했다. 이식은 발문에 조우인에게 <택풍당기문>을 받게 된 연유를 적었다. 조우인이 1616년에 경성 판관에 제수되어 당시 경성에 북평사(北評事)로 있던 이식과 재회한다. 이들은 서로 돌아가게 되면 기문을 지어 주기로 약속한다. 이식은 이때 조우인이 "상주의 매호에 거주했다"(卜居尙州梅湖)라고 회고하고 있다. 그간 매호 은거 시기가 1623년 이후로 알려져 있었으나, 인용문을 근거로 매호 이주가 1616년 이전임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런데 조우인은 1616년 가을에 경성 판관에 제수[20]되기 때문에, 그는 1616년 가을 이전에 매호로 이주했다 하겠다.

---

17) "공은 평소 가정 살림은 거들떠보지를 않으셨다. 그래서 옥사를 겪으신 뒤로는 가정 형편이 더욱 어려워져 처자가 기한(飢寒)을 면치 못하게 되었는데도, 공은 조금도 개의치 않으셨다. 그리고는 오직 산수만을 좋아하시어 감상하곤 하셨는데, 소싯적부터 국내의 유명한 승경은 거의 돌아보지 않은 곳이 없었다"(公平生不省産業. 獄事後家食益窶, 妻子不免饑寒, 而了不介意. 惟好賞泉石, 少時, 徧遊域內名山水). 이식, <우부승지매호조공묘지명 병서>.『택당선생별집』권6, 44장 뒷면(앞의 영인본, 372면).

18) 이광윤(李光胤)이 칠언율시 <차조여익매호정운>(次曺汝益梅湖亭韻)을 임진왜란과 1612년 사이에 지었다는 데에서 조우인이 매호로 이주하기 전에 이미 그곳에 정자를 건립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이광윤,『양서선생문집』(瀼西先生文集) 권1, 17장 뒷면(한국문집총간 속13집, 223면)).

19) "當在北府, 與半刺曹汝益同席, 偶語及此. 曹亦卜居尙州梅湖. 俱切遠遊之恨, 仍相約早歸, 各爲作堂記, 以無忘浪泊、西里之念. 旬日余先歸, 明年, 曹亦罷歸梅湖". 이식, <택풍당기문발>(澤風堂記文跋), 위의 문집 권11, 28장 앞면(위의 영인본, 475면).

20) "병진년 가을에 외람되이 경성의 명을 받았다"(丙辰秋, 叨承鏡城之命). 조우인, <제출새곡후>(題出塞曲後), 앞의 문집 권2, 39장 뒷면(앞의 영인본, 303면).

1616년 가을을 매호 이주 하한선이라 한다면 그 상한선은 언제일까. 조우인은 1613년 정월 초하루에 <유침류대서>(遊枕流臺序)를 지으며 끝에 '峴南耕釣翁'이라는 필명을 쓰고 있어,[21] 당시까지는 예천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후 1613년 3월에 은계 찰방에 제수되어 이듬해 12월 말까지 은계도에 있었다.[22] 이듬 해 가을에 경성 판관에 제수되기까지 그간의 행적을 알지 못하지만, 사간원에서 1614년 12월에 파직 상소를 올린 것으로 보아 1615년 어느 어름에 파직되어 이후에 매호로 이주했거나, 파직되지 않았더라도 식구가 단출했기 때문에 휴가 말미에 이주했으리라 짐작된다. 따라서 매호 이주 상한선을 가깝게는 1615년, 멀게는 1613년으로 잡을 수 있겠다.

조우인의 매호 이주 이후는 출사와 체직의 반복이었다. 1616년에 경성 판관에 부임하였다가 1617년에 체직된다. 1619년 5월 16일에 역적으로 몰려 구금되었다[23]가도, 그 해 대구에 부사로 부임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11월에 다시 나포되어 온다.[24] 1621년 음력 7월 경운궁에 입직했을 때 지은 시로 인하여 고초를 겪기 전까지, 조우인은 북인 정권기에 파직 상소의 대상이 되고 역적으로까지 몰렸지만 벼슬을 제수받으면 출사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조반정이 일어나 1623년에 석방된 후에, 조우인은 벼슬을 제수받으나 치사하고 매호로 낙향해 더 이상 출사하지 않는다. 약골이었던 조우인[25]은 환갑을 넘긴 데다가 정강이뼈가 부서질 정도로 심한 옥고를 치

21) "癸丑元正峴南耕釣翁書". 조우인, <유침류대서>(遊枕流臺序), 유희경(劉希慶), 『촌은집』(村隱集) 권3, 8장 앞면(한국문집총간 55집, 39면).

22) 『광해군일기』에 따르면 조우인은 1613년 3월 6일에 은계 찰방에 제수되었고, 1614년 12월 25일에 사간원에서 파직 상소를 올리나 광해군이 찰방의 출척을 관찰사에게 맡기라고 대답하며 상소의 청을 윤허하지 않는다.

23) "양사가 비밀리에 합계했다. '근년 이래로 국운이 불행하여 역적의 옥사가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허환・조우인・박수서・장의범 등이 옥에 가득히 구금되어 있는데, 단지 오래도록 국문하지 못하게 하여 죽음 속에서 살아나려고 합니다.'"(兩司祕密合啓: '近年以來, 國運不幸, 逆獄繼起. 如許喚、曺友仁、朴守緖、張懿範等, 囚繫滿獄, 而只因久未鞫問, 死中求生'). 『광해군일기』(중초본), 1619. 5. 16. 번역은 국사편찬위원회의 번역을 참고하여 일부 수정했다.

24) "以祕密, 傳曰: '大丘府使曺友仁拿來'". 『광해군일기』(중초본), 1619. 11. 26.

25) 정경세는 조우인의 동생 조희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조우인이 "약골이라 (시화로 인해 겪는 고초를) 지탱하기 어렵지"(初謂弱骨難支) 않을까 걱정한다(정경세, <답조여선>(答曹汝善), 『우복문집』(愚伏文集) 권2, 7장 뒷면(한국문집총간 68집, 216면).

러[26] 심신이 많이 쇠약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매호에 낙향한 조우인은 현실 정치에서 눈을 돌려 경학에 집중하며 유유자적한 은자의 삶을 살다가 1625년에 세상을 떠난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조우인의 삶은 거주지에 따라 함창 거주기, 예천 거주기, 매호 거주기로 구분되고, 본고에서 주목하는 매호 거주기는 시화로 인한 투옥기(投獄期, 1621~1623)를 기준으로 앞의 사환기와 뒤의 은일기로 나뉜다. 이로써 매호 이주가 말년이 아니라 54세 전후로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27] 선행연구에서 매호 이주 시기로 간주한 1623년 이전에, 조우인은 예천집을 별장으로 삼고 일가족을 데리고 매호로 완전히 이주했다.[28] 여기에서 <매호별곡>의 시적 상황이, "臺ᄃᆡ도 ᄃᆞᆺ그려니/亭子졍ᄌᆞ도 지으려니/池塘ᄃᆡ당도 ᄑᆞ오며/澗水간슈도 혜오려니/ᄂᆡ 힘 밋ᄂᆞᆫ ᄃᆡ로/草屋三間초옥삼간 지어ᄂᆡ니"라고 하여 화자가 초가삼간을 갓 지은 상황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만 놓고 볼 때, <매호별곡>은 매호로 이주하고 오래지 않

---

26) "왕께서 크게 화가 나시어 마침내 엄히 고문하라고 명하시니, (조우인의) 정강이뼈가 부서졌다"(王大怒, 遂命嚴拷, 脛骨碎裂). 『광해군일기』, 1622. 6. 22.

27) 선행연구에서는 이식이 쓴 묘지명 병서의 "만년에 상산에 복거하여 매호정사를 짓고 그것을 자호로 삼았다"(晩卜商山, 作梅湖精舍, 仍以自號)라는 기록을 근거로 조우인이 1623년부터 매호에 거주한 것으로 으레 믿어왔다. 그런데 이 기록은 생몰에 대한 서술을 마친 후에, 그의 성품과 취향을 서술하는 "젊은 시절에, 국내의 유명한 산수를 두루 유람하였다"(少時, 徧遊域內名山水)라는 기록에 이어지는 부분이다. 여기에서 만년은 생애를 시간 순에 따라 서술하는 가운데 쓰인 말년이 아니라, 그의 일생 가운데 소시와 대비되는 어휘로 쓰였다. 만년은 '인생의 느지막한 시기', '생애 말년'이라는 두 의미를 지니는데, 여기에서는 전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조우인 스스로도 칠언율시 <새집이 미처 완성되기 전에 친구들에게 제영을 구하다>(新堂未就求友人題詠)의 수련 첫 구에 '느지막이 낙동강 서쪽에 새롭게 거처를 정하고'(晩卜新居洛水西)라고 하여 매호 이주 시기를 만년으로 간주했다. 연구자는 구절의 맥락을 세심히 다루며 어휘 해석에 주의를 요해야 할 것이다.

28) 이식이 1620년에 조우인에게 준 시의 소서에 예천집이 예천의 별장[水酒莊]이라 지칭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 예천집이 별장으로 쓰이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내가 북쪽의 막부에 있을 때 여익과 동료로 함께 근무하며, 훗날 매호를 방문하겠다고 약속하였고, 공도 나에게 <택풍당기>를 지어 주겠다고 허락하였다. 내가 (공에게) 준 시에 '매호를 찾겠다는 훗날의 약속대로, 시골집으로 돌아가면 마음이 응당 편안하리라'라는 구절이 있었다. 이제야 공을 예천의 별장에서 만나게 되었지만, 길이 잘못되어 예전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니, (그것이)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 되었다"(余在北幕, 與汝益同僚, 約他日相訪於梅湖, 公亦許作<澤風堂記. 余留詩云: '尋梅他日約, 田舍去應寬'. 今遇公於水酒莊, 又以道枉, 不成前約, 爲可恨也". 이식, <조첨지 여익의 매호정사 뒤 작은 정자에 차운하여 지어 보내다 소서>(寄題曹僉知汝益友仁梅湖精舍後小亭次韻 小序), 『택당선생집』 권2, 16장 뒷면(앞의 영인본, 30면).

www.kci.go.kr

은, 매호 거주 사환기에 창작된 작품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매호 이주는 조우인에게 매우 설렌 경험[29]이므로 그가 은일기에 <매호별곡>을 창작하면서도 서두에 그 감정을 담아냈을 수도 있다. 전기적 자료만으로는 그 창작 시기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작품에 형상화된 매호 복거와 생활에 집중한 후에 작가 의식에 접근하면서 창작 시기를 가늠해야 할 필요가 있다.

III. <매호별곡>에 나타난 매호에서의 삶

<매호별곡>은 가사의 전형적인 구성인 서사, 본사, 결사의 구성을 취하고 있다. 서사(1~4행)에서 화자는 "明時명시예 ᄇᆞ린 몸"으로 설정된다. 태평성대에는 버려진 사람이 없이 모두 쓰이는데[30] 화자는 그러한 시절에 버려진 몸으로 불우한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런데 조물이 풍월강산을 화자에게 맡기자("갑 업슨 風月풍월과/임지 업슨 江山강산을/造物조물이 許賜허ᄉᆞᄒᆞ야/날을 맛겨 ᄇᆞ리시니"), 화자는 그것을 사양하지 않고 나아가 그것을 두고 다툴 만한 사람도 없다며("닉라 ᄉᆞ양ᄒᆞ며/닷토 리 뉘 이시리") 자신을 강호주인의 적임자로 자부한다.

태평성대에 버려지는 일이 인간세상의 일이라면 조물이 풍월강산을 맡기는 일은 천지자연의 일이다. 인간세상 층위에서 발생한, 존재의 결핍이 천지자연 층위에서 충족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 결과 화자는 세상을 피해

---

29) 매호에서 꾸려갈 삶에 대한 설렘은 대단했다. 그 설렘이 집터도 닦기 전에 친구들에게 제영을 받고자 칠언율시 <새집이 미처 완성되기 전에 친구들에게 제영을 구하다>를 창작한 데에서 감지된다.
"느지막이 낙동강 서쪽에 새롭게 거처를 정하고/바위 갈라 좁은 길 내어 시험 삼아 올라본다/하늘은 너른 들에 늘어져 여러 봉우리 감싸고/강은 평평한 들을 갈라 뭇 시냇물을 받아들이네/번듯한 집은 응당 다음에 세우리니/시편은 바라건대 지금 써 주게나/마침내 아름다운 집을 지은 후에/기록이 항주까지 전해 영원히 잃지 않게 하리라"(晩卜新居洛水西/劚岩開逕試攀躋/天垂鉅野包群峭/江割平原吸衆溪/棟宇直須他日就,/詩篇惟願此時題/終敎有美堂成後/記播杭州永不迷). 조우인, <새집이 미처 완성되기 전에 친구들에게 제영을 구하다>(新堂未就求友人題詠), 앞의 문집 권1, 39장 뒷면(앞의 영인본, 263면).

30) "성인은 항상 사람을 잘 구제하기 때문에 버려지는 사람이 없게 하고, 항상 사물을 잘 구제하기 때문에 버려지는 물건이 없게 한다"(聖人常善救人, 故無棄人, 常善救物, 故無棄物). 『교용』(巧用) 제27장, 『노자 도덕경』(老子 道德經) 상.

숨은 은자의 형상이 아니라 조물이 맡긴 자연을 책임져야 하는 주인의식을 가진 형상으로 나타난다. 강호주인이라는 자부심은 <매호별곡>의 시상 전개에서 중심 역할을 한다.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화자가 본사에서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지 분석해보기로 한다. 본사는 중심 제재에 따라 매호의 승경을 노래한 본사1(5~46행)과 매호에서의 생활을 노래한 본사2(47~88행)로 나뉘므로 그것에 따라 작품을 읽기로 한다.

1. 매호 복거에 대한 설렘과 호기 표출

본사1은 매호를 복거지로 선정하고 그곳에 초당을 지은 후에 주변의 승경을 예찬하는 내용이다. 이 부분은 복거지 조성에 대한 설렘을 노래한 전단(前段, 5~13행)과 매호 승경을 예찬하며 호기를 표출하는 후단(後段, 14~46행)으로 나뉜다.

[2] 商山東畔샹산동반과	洛水西厓낙슈셔ᄋᆡ예
烟霞연하을 헤치고	洞天동쳔을 ᄎᆞᄌᆞ 드러
竹杖芒鞋쥭장망혜로	處〃쳐〃의 도라보니
澄潭징담 깁흔 곳의	노프니ᄂᆞᆫ 絶壁졀벽이오
옥 ᄀᆞᆺ툰 여흘은	깁 편 ᄃᆞᆺ 흘너 잇다
臺ᄃᆡ도 ᄃᆞᆺ그려니	亭子졍ᄌᆞ도 지으려니
池塘디당도 ᄑᆞ오며	澗水간슈도 헤오려니
ᄂᆡ 힘 밋ᄂᆞᆫ ᄃᆡ로	草屋三間초옥삼간 지어ᄂᆡ니
制度草創뎨도초창ᄒᆞᆫᄃᆡ	景槩경ᄀᆡᄂᆞᆫ 그지업다

전단에 해당하는 [2]에서 화자는 복거할 만한 장소를 찾아내어 그곳에 복거지를 조성하기 시작한다. 상주의 동쪽, 낙동강 서쪽 물가에 이르러 연하를 헤치어 별천지라 할 만한 곳을 살 곳으로 결정한다. 이곳에는 깊고 맑은 못, 높은 절벽, 맑은 여울이 있다. 이곳을 발견한 화자는 집도 짓기 전에 바로 대도 닦고, 정자도 짓고, 못도 파며 그곳에 댈 물을 헤아릴 생각으로 가득하다. 머릿속에 가득한 계획이 초가삼간이라는 실체로 현현되기 시작하자,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도 함께 충족되기 시작한다. 누구의 도움 없이

www.kci.go.kr

내 힘이 미치는 정도로 지은 초가삼간은 번듯하지 않다. 조성을 갓 시작하여 그 모습이 성글고 형편없이 초라할지라도 주변의 경치만큼은 끝내준다는 대조를 통해 화자는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와 복거지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다. 복거지 경영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인해 눈앞에 펼쳐진 매호가 화자에게 더할 나위 없는 승경으로 다가서는 것이다.

화자가 '헤치고 찾아들어 돌아보는' 행동은 선경을 찾는 데에 늘 사용되는 어구이지만, 이것으로 인해 화자가 승경을 발견하는 적극성이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강호주인에 대한 주인의식이 행동으로 발현된 것이다. 적극적 행위를 통해 발견한 매호에 대한 만족은 후반부의 '-려니'의 연쇄를 통해 설렘이라는 감정으로 표출된다. 곧 본사는 발견한 복거지에 초가삼간을 축조하여 새로운 정주지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설렘으로 시작한다.

3 端妙단묘ᄒᆞᆫ 飛鳳비봉과	偃蹇언건ᄒᆞᆫ 梅岳매악이
東西동셔ᄅᆞᆯ 相對상딕ᄒᆞ여	有情유졍이 셔 이시니
玉容端士옥용단ᄉᆞ와	介胄武夫기쥬무뷔
揖讓周旋읍양주션ᄒᆞ여	氣勢긔셰ᄅᆞᆯ 다토ᄂᆞᆫ ᄃᆞᆺ
一髮玉岑일발옥줌은	戛雲알운이 혼ᄌᆞ 놉다
五朶蓮峰오태연봉은	密山밀산이 더옥 곱다
외로운 天柱쳔쥬ᄂᆞᆫ	무숨 긔운 타나 이셔
九萬里長天구만니쟝쳔을	구쥭히 밧쳐시며
완젼ᄒᆞᆫ 水山슈산은	무숨 마음 먹어 이셔
풀쳐 간ᄂᆞᆫ ᄃᆞᆺ	돌치며 소ᄉᆞᄂᆞᆫ ᄃᆞᆺ
그 남은 衆峯중봉이	수업시 버러시니
멀니 뵈나니ᄂᆞᆫ	綽約佳人자약가인이
嬌態교틱ᄅᆞᆯ 못 갑초아	翠眉취미ᄅᆞᆯ 찡기ᄂᆞᆫ ᄃᆞᆺ
갓가이 뵈나니ᄂᆞᆫ	龍眠畵工뇽면화공
水墨新粧수묵신쟝을	彩筆치필노 둘넌ᄂᆞᆫ ᄃᆞᆺ

이어 산에서 물로, 물에서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후단(後段)이 이어진다. 3은 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부분이다. 동서로 마주한 비봉산과 매악산은 각각 용맹한 무신과 단아한 문신으로, 먼 산은 아름다운 여인으로

www.kci.go.kr

형상화된다. 여기에 수없이 어우러진 봉우리들로 인해 산의 경치는 인간 사회의 조화로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움이라는 이중의 상징을 가진다. 매호의 산경(山景)[31]이라는 내용으로 집약되는 이 부분에서, 산경 예찬을 통해 조화로운 삶의 기대가 진술된다.

산경에서의 시선은 눈앞의 비봉산과 매악산에서 출발해 멀리 보이는 뭇 봉우리로 향한다. 비봉산은 매호 건너 의성군에 있는 산이고, 매악산은 매호의 뒷산이다. 여기에서 옥잠봉과 오봉산, 천주와 수산으로 시야가 넓어지며, 시야는 멀리 보이는 뭇 산으로까지 나아간다. 이에 맞추어 행 안에서의 구 단위 대구('단묘한 비봉과 언건한 매악')에서 행 간의 대구, 2행 간의 대구가 운용된다. 근경에서 원경으로 이동하는 시선에 맞추어 대구가 절묘하게 운용되면서 풍경의 원근과 호흡의 완급이 비교적 일치한다. 눈앞의 촘촘한 광경에서 멀리 성근 광경으로 나아가며 대구가 촉급한 데에서 완만한 데로 공교하게 옮겨 가고, 동시에 높은 하늘에서 매호 주변의 풍광을 바라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켜 호기가 한껏 발산되고 있다.

4 뫼흔ᄀᆞ니와	물을 죠ᄎᆞ 이으려니
黃池一脉황디일믹이	萬壑만학을 呑合탄합ᄒᆞ여
千里朝宗쳔니조종ᄒᆞ여	碧海벽히예 이윗거든
龍秋용추의 ᄂᆞ린 물이	어딕롤 指向지향ᄒᆞ여
二十四橋니십ᄉᆞ교롤	구븨〃〃 우려 ᄂᆞ려
絶壁졀벽을 감도라	竹院灘죽원탄의 드러오니
銀河은하의 다핫ᄂᆞᆫ ᄃᆞᆺ	玉虹옥홍이 둘넛ᄂᆞᆫ ᄃᆞᆺ
曠野迷茫광야미망ᄒᆞ야	하ᄂᆞᆯ이 한 가이오
平沙浩明평ᄉᆞ호명ᄒᆞ야	눈 편 ᄃᆞᆺ ᄒᆞ여 잇다
千頃浩光쳔경호광은	寶鏡보경을 ᄃᆞᆺ가시며
十里漁村십니어촌은	烟樹년슈로 粧占장졈ᄒᆞ니
臨湖眼界님호안계와	御風勝槩어풍승기롤
말노 다 이ᄅᆞ오며	아니 보아 어이 알고

31) 작품의 내용을 집약하는 어휘로 활용한 산경(山景), 수경(水景), 사시경(四時景)은 김기탁(1992)이 처음 사용한 어휘로 <매호별곡>에서 매호의 사시를 진술하는 부분의 '四時예 뵈ᄂᆞᆫ 경'이라는 표현을 활용한 것이다.

www.kci.go.kr

4는 물과 물가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부분이다. 복거지 앞 매호와 들에는 '광야미망', '평사호명', '천경호광'의 어휘로 넓고[迷茫, 千頃] 맑은[銀河, 玉虹, 浩明, 浩光] 성격이 부여된다. 곧 매호는 호탕하고 맑은 기운이 모인 곳으로 호연지기(浩然之氣)를 함양할 만한 공간으로 간주된다. 태백산 황지(黃池)에서 발원하여 바다로 이르는 낙동강의 긴 흐름이 지니는 유장함과 뭇 지류를 모아 흐르는 낙동강이 지니는 포용력은 호연지기의 공간적 성격을 강조하는 데에 기여한다.

산경에서 느슨하게 마무리된 호흡을 받아 수경은 느슨한 호흡으로 시작한다. 태백의 황지에서 발원하여 바다에 이르는 낙동강의 유장하고도 기세 있는 흐름이 행간 대구를 통해 완만한 호흡으로 진술된다. 이어 속리산 깊은 계곡 용추에서 발원하여 문경의 이십사교를 지나 절벽을 감돌아 매호의 상류 죽원탄에서 낙동강과 합류하는 지류 영강의 우렁찬 흐름이 구 단위의 대구를 통해 촉급한 호흡으로 진술된다. 힘찬 흐름이 시선의 변화와 함께 매호로 집약되며, 그것이 천경(千頃)과 어촌(漁村)으로 대표되는 매호 마을로 이어진다. 그 결과 그곳은 생동하는, 역동적인 공간으로 거듭난다.

5 그ᄂᆞᆫᄀᆞ니와	四時예 뵈ᄂᆞᆫ 경이
피여 디ᄂᆞᆫ ᄃᆞᆺ	푸르러 이우ᄂᆞᆫ ᄃᆞᆺ
千巖쳔남이 錦繡금슈된 ᄃᆞᆺ	萬壑만학이 瓊瑤경요된 ᄃᆞᆺ
畵工手段화공슈단을	층냥키 어려워라
보아 쓸의며	變態변틱를 가을홀가

5에 이르면 산수경(山水景)에 이어 사계의 경치가 진술되면서 매호의 산수라는 공간에 시간의 순환성이 부여된다. 이로써 매호의 경치는 순환과 영원성을 획득한다. 이것이 측량하기 어려운 '화공수단'이라는 어휘로 집약된다. 이것은 경물의 아름다움이라는 자의(字意)에 한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매호와 그 주변이 인간과 자연의 조화, 인간 사회의 조화가 구현된 곳이며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장소라는 관념적 층위의 인식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화자는 매호의 승경을 예찬하면서 그곳에서의 조화로운 삶을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피'고' 지'고' 푸르'고' 이우는 사계절의 상징성이

www.kci.go.kr

아니라 피‘여’ 지는 ‘듯’ 푸르‘러’ 이우는 ‘듯’이라는 변화이다. 변화의 정도가 아니라 사계가 단절적으로 미처 인식되기도 전에 다음에서 다음으로 이어진다는 변화성에 대한 인식이 포착된다. 가을이 된 ‘듯’하면 벌써 겨울이 된 ‘듯’하다는 표현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화공의 솜씨를 ‘측량하기’도 어렵고, 보아도 싫증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 변화를 구별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형상성의 포착은 매호 풍광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의 다른 표현이고, 결국 기대와 설렘에서 기인한다. 사시경에서 화자는 사계절에 따른 변화로운 풍광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상주 동쪽, 낙동강 서쪽이라는 특정 장소를 일컬으며 시작한 본사에서 화자는 중국 북송의 문인화가 용면(龍眠) 이공린(李公麟)의 그림 솜씨인지, 수묵으로 새롭게 단장했는지, 화공의 솜씨인지라는 어휘들을 활용하여 새 주거지인 매호를 그림 같다고 예찬한다. 여기에 매호를 둘러싼 함창, 문경, 의성, 예천의 고유지명이 적절하게 구사됨으로써 작품 밖 실제 공간인 매호는 승지의 성격을 부여받는다. 아울러 시야가 산을 따라 수직적으로 상승하고 강을 따라 수평적으로 확장됨으로써 인간의 물리적 시계(視界)를 초월하는 호기가 표출된다. 호기는 매호주인을 자처하는 의식의 발로이다.

본사1에 진술된 매호 복거에 대한 설렘, 그곳에서의 조화로운 삶의 기대, 매호주인으로서의 호기는 복거지 매호에 대한 만족감의 자연스러운 표출로 이해된다. 그런데 화자는 서사에서 인간세상 층위의 결핍과 천지자연 층위의 충족이라는 현실과 강호의 인식 구도를 드러냈다. 이러한 인식 구도가 전제될 때, 만족감의 이면에 자리한, 매호 저쪽의 삶, 매호 복거 이전의 삶에 대한 불만이 감지된다. 이것이 결국 화자가 강호와 그 생활에 몰입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 본사2로 이어진다.

2. 매호 생활에 대한 소회와 다짐 술회

본사2는 매호 초당에 들어 그간의 생활을 반추하고 앞으로의 생활을 구상하며 그 자세를 노래하는 내용이다. 본사2도 본사1과 마찬가지로 내용에 따라 두 단으로 나뉜다. 전단(前段, 47~53행)은 매호 생활을 시작하며 드는 소회를 노래하는 부분이고, 후단(後段, 54~88행)은 매호에서의 생활을

www.kci.go.kr

진술하며 앞으로의 삶에 대한 다짐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6 늙고 병들고	疎懶소ᄅᆞᆫᄒᆞᆫ 이 셩품이
世情세졍도 몰ᄅᆞ고	人事인ᄉᆞ의 오활ᄒᆞ여
功名富貴공명부귀도	구키예 손이 셔려
貧賤飢寒빈쳔긔한을	一生일싱의 격거 이셔
樂天知命낙쳔지명을	예 ᄌᆞᆷ깐 드러더니
山水산슈에 벽이 이셔	偶然우연히 드러오니
得喪득샹도 모ᄅᆞ거든	榮辱영욕을 어이 알며
是非시비을 못 듯거니	黜陟츌쳑을 어이 알꼬

전단인 6에 이르면 시선은 물상(物像)이라는 외부에서 자신의 삶이라는 내부로 옮겨간다. 화자는 매호에 든 소회를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서투르고 게으른[疏懶] 성격으로 인해 세정도 모르고 인사에 오활하며 일생을 빈한하게 살았다고 회고한다. 매호에 우연히 들어와서야 득실, 영욕, 시비, 출척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매호를 세속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 그곳과 단절된 장소로 간주한다. 여기에서 화자는 일생을 반추하고 현재의 심리를 고백한다. 화자에게 매호가 그간의 삶을 정리하고 일신(一新)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에 반추가 개입된 것이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낙천지명'이라는 어휘가 주목된다. 화자는 예전에 낙천지명이라는 말을 잠깐 들어 알고 있었을 뿐, 강호에 들어와서야 그 의미를 깨달았다고 진술한다. 『주역』에서는 천도(天道)를 기꺼이 따르고 천명(天命)을 알아 지키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로 짐작하건대 성품이 소활하고 부귀공명을 구하기에 손이 설어 일생을 빈한하게 지냈다는, 화자의 담담한 진술에는 그간에 근심이 가득했다는 심정이 담겨 있다 하겠다. 부귀공명까지는 아니지만 빈한한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득상, 영욕, 시비, 출척에 무디지 않고자 노력했지만 그것이 어려웠다는 고백이다. 매호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그 생활에 대한 만족이나 기대만을 진술하면 될 것을, 유독 네 어휘를 선택하고 설의법을 구사하여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간의 마음고생에 대한 회한과 부정적 자기인식이 감지된다.

www.kci.go.kr

7 環堵蕭然환도소연ᄒᆞ여	容膝용슬을 ᄒᆞ덧 마덧
斗室泠寂두실잠젹ᄒᆞ여	世慮셰례를 이져시니
黃卷聖賢황권셩현은	曠世광셰예 師友ᄉᆞ우시며
天地神明쳔지신명은	方寸방촌의 비최시며
性分稟受셩분품수를	져바리지 마자 ᄒᆞ니
疏食水飮쇼ᄉᆞ수음도	이우나 못 니우나
古人眞樂고인진낙이	靜中정즁의 깁허셔라
時〃掩卷시〃엄권ᄒᆞ여	擊節長吁젹졀장우ᄒᆞ고
彈琴一曲탄금일곡ᄒᆞ고	濁酒三盃탁쥬삼비ᄒᆞᆫ 후
浩〃長歌호〃쟝가를	느리혀 부르니
唐虞당우ᄂᆞᆫ 언졔런고	이 닉 몸 느존졔고

복거지에서의 생활이 진술되는 후단은 화자의 방안 생활을 노래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무릎이나 겨우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사람을 들이기 어려운 협소한 공간에서 성현의 서책을 읽으며 안분지족과 안빈낙도의 삶을 지켜나가고자 다짐한다. 독서를 하다가 때로 손으로 무릎을 쳐서 박자를 맞추며 긴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거문고를 연주하기도 하고 막걸리도 마시며 긴 노래를 호탕하게 늘여 부르기도 한다. “당우ᄂᆞᆫ 언제런고 이 닉 몸 느존졔고”라며, 중국 상산사호(商山四皓)의 <자지가>(紫芝歌)도 부르며 강호에서의 안빈낙도하는 삶을 긍정한다.

여기에서 화자는 좁은 방에 들어 세상 근심을 잊고 책을 읽으며 세속의 사람들과 단절한 형상으로 나타난다. 그는 가난에 개의치 않고 분수를 지키며 살고자 한다. 급할 것이 없다. 방안에 홀로 ‘조용히’[靜] 앉아 ‘때때로’[時〃] 독서하고, 노래를 ‘늘어뜨려’ 부른다. 방안에서의 생활은 한껏 여유롭다. 그간의 일을 회고하며 득상, 영욕, 시비, 출척을 잊고 살겠다는 다짐에 맞게 여유로운 생활에 집중하고 있다.

8 山林산님이 寂寞젹막ᄒᆞᆫ딕	혜여든 다ᄉᆞᆫ 듯
孤雲고운을 보거니	獨鳥독조ᄂᆞᆫ 무슴 일고
明月淸風명월쳥풍은	함끠 조챠 드노ᄆᆡ라
烹茶핑다를 ᄒᆞ오리라	松子송ᄌᆞ를 주어 노코

www.kci.go.kr

朮酒출쥬를 거른 후의　　葛巾갈건을 아니 널냐
溪邊계변 든 잠을　　水聲슈셩이 찌오는 듯
竹林쥭님 깁흔 곳의　　손니 조차 오노믜라
柴門싀문을 열치고　　落葉낙엽을 밧비 쓸며
익기 찌힌 바회예　　지혀도 안즈 보며
그늘진 松根송근을　　베고도 누어 보며
閑談한담을 못다 그쳐　　山日산일이 빗겨시니
尋僧심승을 언제 홀고　　採藥치약이 져물거다

8에 이르러 화자는 방을 나선다. 방안이나 산림이 여유롭고 적막한 듯하지만 생활은 다사하고 분주하다. 이들 행위는 모두 은일 생활이라는 관념에 체계화되어 있는 상징적인 행위이다. '솔방울 줍기', '차 끓이기'[烹茶], '술 거르기', '갈건 널기', '계변에 잠 들기', '은자 맞기', '낙엽 쓸기', '바위 앉기', '송근 베기', '한담하기', '심승', '채약', 각각은 세속의 번거로운 일에서 벗어난 은자의 여유롭고 조용한 삶을 상징한다. 그러나 한적한 생활의 연쇄에서 분주함이 느껴진다. 더욱이 일련의 행동이 마치 하루 중에 차례로 경험한 일상인양 진술되어, 마치 그것을 지켜야만 은자의 하루가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의지를 나타내는 'ᄒᆞ오리라', 설의를 통해 당위성을 강조하는 '아니 널랴', 은자의 방문에 감탄하는 '오노믜라'가 사용되어 강호에서 은자로서의 삶을 규범적 층위에서 실현하려는 강박이 느껴진다.

9 그도 번거ᄒᆞ여　　뗠치고 거러 올나
萬里雙眸만니쌍모를　　치 드러 도ᄅᆞ보니
落霞孤鶩낙하고목은　　오며 가며 단니거든
茫〃俗物망〃속물은　　眼中안중의 塵埃진익로다
機心긔심을 이졋거니　　魚鳥어됴나 날 ᄃᆡ홀랴
苔磯틱긔예 나려 안즈　　白鷗빅구를 벗을 삼고
瓦盆와분을 거우려　　취토록 혼즈 먹고
興盡흥진을 긔약ᄒᆞ여　　夕陽셕양을 보닌 후의
江門강문의 달이 올나　　水天슈쳔이 일식인 졔
滿江風流만강풍뉴를　　ᄒᆞᆫ 비 우의 시러 오니
飄然天地표연쳔디예　　걸닌 고디 무슴 일고

www.kci.go.kr

결국 화자는 ⑨에 이르러 앞서 나열된 생활을 번거롭다고 하고는 세차게 산을 오른다. 매악산에 오른 화자는 힘주어 두 눈을 들어 먼 곳을 바라본다. 눈에 아득히 보이는 속물들을 모두 눈 속의 먼지 정도로 여기고 기심을 잊었다고 자부한다. 이에 산에서 물가로 내려와 이끼가 낀 바위에 앉아 백구를 벗으로 삼고, 소박한 와분을 술잔으로 삼아 취하도록 술을 마시고 만강의 풍류를 배에 실어오는 흥취를 한껏 즐긴다.

'세차게'[떨치고] 산에 오르고 눈을 '힘주어'[치] 들어 멀리 보는 화자에게서 강한 기개가 느껴진다. 매악산에 올라 눈을 들어 앞을 멀리 내다보는 화자의 형상에서 화자가 매호주인을 자임하는 의식이 감지된다. 그렇기에 산에 내려와서도 강에 가득 찬 달빛을 배에 실어오는 호기를 부린다. 화자는 선유를 하는 동안 스스로를 세속을 초월한 신선이라 여긴다. 그러니 배가 물가에 닿을 즈음, 실은 자신이 부평초처럼 세상[천지]에 가볍게 걸려 있다는 상황임을 깨닫고 놀라움에 이른다. 마지막에 이르러 그의 의식이 현실로 돌아온 것이다.

여기에서 '기심을 잊었거니'라는 선언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화자가 기심을 잊었다면[忘機] 기심에 대한 인식 없이 강호에 몰입하고 있었을 것이다. 한 대상에 몰입하고 있으면 그 대상이 마음에 가득하여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심'이라는 어휘가 '잊었다'라는 서술어든, '잊지 않았다'라는 서술어든, 진술되고 있다는 점은 화자가 '망기'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기심을 잊었거니'에서 강호에 몰입하지 못하는 심리가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본사2는 전단에서 그간의 삶을 반추하며 지금의 소회를 드러내고, 후단에서 새로운 거처에서의 여유롭기도 다사하기도 한 강호 생활을 나열한 후에 매호에서의 밤풍류를 즐긴 후에 초옥삼간으로 돌아오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은자로서의 규범적인 삶을 번거롭게 느끼고, 강호에 몰입하다가도 기심을 잊지 못하는 모습이 포착된다. 곧 화자가 매호를 피세처로 간주하고자 하면서도 세속으로 인식하는 이중의 의식이 발견된다. 화자에게 매호는 세속과 단절되지 않은 공간인 것이다.

www.kci.go.kr

두어라 이렁셩 그러 終老ᄒᆞᆫ달 어이ᄒᆞ리

결사에 이르러 화자는 복잡한 심리에 대한 해결책으로 늙도록 이렇게 저렇게 보내겠다고 다짐한다. '이렇게 저렇게'라는 부정(不定)한 선언은 1차적으로 강호에서 은자로서의 규범적인 삶을 살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규범적인 삶의 지양은 피세적 삶이든 세속적 삶이든 어떠한 한 형태를 지향하지 않겠다는 의식의 발로이다. 과거를 반추하고 이러저러한 형태의 삶을 가늠해본 과정을 생각한다면 결사가 싱겁다. 결사가 한 행의 결어 형태인 점도 급하게 마무리된 흔적이 아닐까 싶다. 이 점은 작품 밖으로 나와 조우인의 매호 생활을 검토하면서 그의 내면에 접근해야 해명될 것이다.

Ⅳ. <매호별곡>에 내재한 창작의식

<매호별곡>의 화자는 매호에 복거하면서 느낀 기쁨과 설렘, 앞으로의 삶에 대한 다짐을 노래하고 있었다. 그런데 복거의 설렘이 중심인 본사1의 소재는 매호의 승경, 앞날에 대한 다짐이 중심인 본사2의 소재는 매호에서의 생활이었다. 소재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매호별곡>은 '강호한정'(江湖閑情)을 노래한 강호가사의 전형에 속한다. 그런데 명시에 버려졌다거나, 강호에 우연히 들어왔다거나, 당우(唐虞)의 태평성대에 늦은 몸이라는 구절에서, 화자를 통해 작품의 문면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밝은 심리 이면에 도사린 복잡한 마음이 감지된다. 이것을 무심히 지나쳐 버릴 수 없다. 이것이 <매호별곡>의 창작의식과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가의 창작의식 층위에서 작품과 그 주변 자료를 통해 조우인의 내면에 한층 더 접근할 필요가 있다.

조우인은 함창에서 예천으로, 예천에서 매호로 이주한다. 함창에서 예천으로의 이주는 상대적으로 도회로 나가는 것이고, 예천에서 매호로의 이주는 도회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예천은 외가의 연고지로, 함창 생활을 정리하고 문과에 급제하여 단란한 생활을 보낸 곳이다. 이곳을 별장으로 삼고 매호로 이주한 데에는 표면적으로 조용한 승경지로의 이주라는 의미를 부

www.kci.go.kr

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거 영역의 확장, 승경지 거주라는 긍정적 의미가 포착된다. 그런데 여러 벼슬을 거치고 있는 문과급제자가 매호에 별서를 둔다면 모를까, 뱃길이나 통할만한 궁벽한 곳으로의 이주는 피세의식을 지닌 은자의 행위에 가깝게 보인다.

매호에 복거할 즈음의 내면에 접근하기 위해서 그의 벼슬 경력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605년 문과에 급제한 이듬해, 조우인은 공무로 의주에 다녀온다. 그 즈음에 그는 부쩍 노쇠함을 느끼고,[32] 문재를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탄식한다.[33] 문과에 급제한 지 이태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밝은 앞날을 기대하는 명랑한 의식보다 어두운 현실을 답답해하는 우울감이 지배적이다. 이후 1608년에 봉상시 직장(종7품), 1613년에 은계 찰방(종6품), 1616년에 경성 판관(종5품) 등의 벼슬을 제수받는다. 1614년에 이전에 조우인은 정3품의 통훈대부(通訓大夫)에 이미 오르지만,[34] 이후 미관말직은 아니나 품계보다 낮은 외직을 제수받으며 우울감이 지속한 것으로 추측된다.

벼슬살이에 대한 불만과 관련해 <출관사>과 <출새곡>의 제목도 주목을 요한다. <출관사>는 공무로 의주에 간 경험을 제재로, <출새곡>은 판관에 제수되어 경성에 간 경험을 제재로 창작된 가사 작품이다. 기행가사의 전형적인 제목은 '지역+별곡(또는 가/곡/사)'이다. 그런데 두 작품의 제목은 각각 '관'이나 '새'를 나선다로 해석된다. 의주나 경성으로 가는 길을 마치 조선의 강역을 벗어나는 상황으로 인식한 것이다. 그렇기에 먼 북방에서 체직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오히려 기뻐했던 심정이 이해된다.[35] 조

32) "吾年四十六/白髮遽如許/平明引鏡照/鑷之未盡去/白少猶可鑷/黑少將奈何/無寧鑷其黑/留却白皤皤/豈但髮白已/寂怕面貌衰/髮白尙可鑷/貌衰詎能醫/人道還丹妙/我說還丹非/不如沽美酒/盡日賞芳菲". 조우인, <거울을 들고 족집게로 흰머리를 뽑으며 웃고는 제하다>(攬鏡鑷白毛笑題), 위의 문집 권1, 51장 앞면~뒷면(위의 영인본, 270면).

33) "제1수: 零琴難湊合/猶自覓鑪邊/始也迷歧逕/終焉到貫穿/有匙能啓鑰/無櫓豈行船/揜卷思量盡/驚心惜暮年. 제2수: 褊性攻難克/猶堪守這邊/到精珠可切/耐久鐵能穿/莫作衝風鷁/須看上水船/纔過四十七/尙少蘧瑗年". 조우인, <스스로 쓰다>(自敍), 위의 문집 권1, 20장 앞면~뒷면(위의 영인본, 254면).

34) 1614년(甲寅) 가을에 지은 <제오현종사묘정집례계첩후서후>(題五賢從祀廟庭執禮契帖後敍後) 끝에 "후학 통훈대부 행 겸은계찰방 조우인 근서"(後學通訓大夫行兼銀溪道察訪曹友仁謹書)라는 기록이 확인된다. 조우인, <제오현종사묘정집례계첩후서후>, 앞의 문집 권2, 28장 뒷면(앞의 영인본, 302면).

35) "장백산 꼭대기 제일봉에/어찌 공을 새길 만한 돌이 없겠는가/활과 칼은 원래 내 일이 아니

www.kci.go.kr

우인은 자신의 벼슬생활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을 불우하다고 여겼다. 이것이 서사의 '명시에 버린 몸'이나 본사2의 '늙고 병들고 소라한 성품', '세정도 모르고 인사도 오활해 부귀공명을 구하기에는 서린 손'이라는 고백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불우의식이 형성된 원인으로 광해조 북인 정권 하에서 그가 남인 선비로 품계보다 낮은 외직에 주로 머물렀다는 점과 더불어 집안의 내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증조 조계형(曺繼衡)은 1495년 진사시에서 장원을 하고, 1501년 문과시에서 2등 1위를 할 정도로 문재가 있던 선비였다. 1504년에 병조정랑이던 조계형은 역서(曆書)를 한글로 번역하도록 하는 명을 받기도 하고, 1505년에는 악장을 창작하기도 하며 연산군에게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다가 중종반정이 일어나 훈적을 받아 공신이 되었으나, 반정이 일어나던 날에 입직했다가 화를 모면하기 위해 도망쳐 훈적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훈적을 삭탈당한다.[36] 이 일은 박동량(朴東亮)의 『기재잡기』(寄齋雜記), 허봉(許篈)의 『해동야언』(海東野言) 등에도 실려 널리 알려져 있었다. 증조의 이러한 행적으로 조부와 부친은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고, 이것이 조우인의 벼슬길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조우인의 심리에도 적잖은 영향을 주었으리라 짐작된다. 4대가 거주하던 함창에서 예천으로 이주했지만, 다시 예천에서 궁벽한 매호로 이주했다. 이주에는 이러한 심리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벼슬살이에 대한 불만, 집안 내력에 대한 위축된 심리와 달리 <매호별곡>의 본사1에서는 설렘, 기대감, 호기가 발산되고 있었다. 조우인이 매호를 함창과 예천에 거주하는 동안에도 거주하고 싶은 곳으로 눈여겨보았다는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본사1에서 표출되는 긍정의 심리에서 매호 거주 이전의 우울감과 불우의식을 쇄신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읽어낼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감이라면 매호 생활에 대한 몰입과 만족감이 이어져야 마땅하다. 그런데 본사2에서는 생활에 몰입하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

니/돌아가 황제를 기리고 성군을 보필하리라"(長白山頭第一峯/豈無餘石可銘功/弓刀不是吾家事/歸贊皇猷補聖躬). 조우인, <체직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서 읊다>(聞遞職喜甚有詠), 위의 문집 권1, 17장 앞면(위의 영인본, 253면). 이 시의 번역은 박이정(앞의 논문, 187면)의 번역을 따른다.

36) 이상의 조계형에 대한 전기적 사실은 『중종실록』에 근거하여 기술했다.

www.kci.go.kr

는 부정(否定)의 심리가 발견된다. 본사2에서 화자는 자신의 삶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은일의 관습적 양상에 대해 거리를 두며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듯하면서도, 첫째, 그 지향이 명확하지 않은 채 '이렇게 저렇게 늙겠다'는 부정(不定)한 선언에 그친다는 점, 둘째, 작품의 결사가 1행의 결어로 이루어진, 완정하지 않은 구성을 갖추고 있는 점이 문제적이다.

제2수
동서로 난 길은 천 갈래인데
옛 성현의 자취는 계단 오르는 길 같구나.
일찍이 경쇠를 치고 창해에 뜬 것이 마음 아팠는데
도리어 거문고 들고 옥계를 지난 것이 애석하구나.
조수야 진작에 내 저들의 짝 아님을 알았건만
'산뢰'라는 글자를 오히려 남들을 향해 붙여두누나.
남쪽 향한 꽃가지가 이 밤에 향기를 처음 내니
처마 돌며 웃고자 하니 흥을 잃지 않겠네.
路有千歧東復西　　古賢遺躅若爲躋
曾傷擊磬浮滄海　　更惜携琴過玉溪
鳥獸已知非我侶　　山雷猶自向人題
南枝一夜香初動　　索笑巡簷興不迷

조우인은 1620년 이전에 매호정사를 건립[37]한 후에 그간의 삶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삶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아 1제 2수의 칠언율시 <호사가 새로 완성되어 보내드리다>(湖舍新成寄呈)를 창작한다. 이 작품은 매호에 살면서 일어난 의식의 추이 살펴보기 위해 주목된다. 인용한 부분은 제2수이다. 제1수는 매호에 머무르며 더 이상 헤매지 않겠다는 다짐을 통해 지난 삶과는 다른 삶을 꿈꾸는 내용이다.[38] 제2수에 이르면 자기 성찰을 통해 제1수

37) 이식이 1620년에 예천의 별장을 찾아갔을 때 칠언절구 <조첨지 여익의 매호정사 뒤 작은 정자에 차운하여 지어 보내다>(寄題曹僉知汝益友仁梅湖精舍後小亭次韻)를 지었다(주26).
38) "언덕 따라 밟고 돌아 작은 다리 서쪽으로 가/풀 헤치고 한 좁은 길 찾아 걸어 올랐네/잠깐 만에 거친 넝쿨 베어 작은 집 짓고/큰 돌 들추어 맑은 시냇물 끌어들였네/정신을 환히 밝혀 책을 쌓아 정리해 두고/문장을 구슬같이 엮어 벽에 가득 썼네/반평생을 편안히 보내고 남은 날 적으나/앞길에는 헤매는 걸음 면한 것이 오히려 기쁘구나"(緣厓踏轉小橋西/披草經尋一逕躋/乍剔荒榛開斗室/因跼巨石注澄溪/精神熙孔牀堆帙/點綴珠璣壁滿題/穩過半生餘日少/前途猶

의 다짐을 드러내어 밝힌다. 작품에서 지난 삶과 앞으로의 삶은 '迷'라는 어휘를 중심으로, 전자는 '迷'(미), 후자는 '免行迷'(면행미)[제1수]·'不迷'(불미)[제2수]로 정리된다. 이 '迷'와 '不迷'는 매호정사의 완성을 기점으로 선후의 관계에 놓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파악은 <매호별곡>의 본사2에 대한 두 가지 의문을 푸는 데에 핵심이 된다.

수련에서는 길과 자취라는 비유어를 대조적으로 사용하여 성현의 뒤를 따르는 어려움을 노래한다. '동서로 난 천 갈래의 길'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생 선택지이다. 이 길은 수평적으로 여러 갈래로 뻗어 있다. 선택하기가 어려울 뿐 선택하면 그 길을 걷기는, 뒤이은 '성현의 자취'를 따르기보다 어렵지 않다. 성현의 뒤를 따르는 일은 드문드문 남은 자취를 찾아야하기 때문에, 그것은 계단을 수직적으로 힘겹게 오르는 일과 같다. 길과 자취의 대조는, 결국 조우인이 앞으로 성현의 자취를 찾아 따르겠다는 의지의 완곡한 표명이다. 여기에는 그간에 현실의 천 갈래 길만 보아 오며 우왕좌왕[迷]했다는 성찰이 담겨 있다. 성찰의 구체적인 대상은 <매호별곡>에서 진술한, 빈한한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득상, 영욕, 시비, 출척에 무디지 않고자 살아온 삶(⑥)로 파악된다. 화자가 그것에 대해 성찰한 후에 낙천지명을 깨달아 황권성현을 광세에 사우로 여기며 고인진락을 찾게 되었기(⑦) 때문이다. 이로 본다면 고인의 자취가 은자의 삶으로 이해되지만, <매호별곡>이 피세의식을 지닌 은자의 삶에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자취의 실체를 함련과 경련을 통해 파악해 나가야 한다.

함련에 이르면 그간의 삶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성한다. 전구에서 공자가 경쇠를 치며 세상의 도가 행해지지 않음을 걱정하던 고사[39]를 활용하여, 벼슬길에 나아가 도를 행하고자 하는 데에 마음을 두고 살았다고 술회한다. 그러나 후구에서 주자가 세상에 뜻을 펼칠 마음을 접고 세속을 떠나 은거하려는 마음을 담은 시구[40]를 활용하여, 문과 급제도 늦은 데에다가 품계

喜免行迷). 조우인, <호사가 새로 완성되어 보내드리다> 제1수, 앞의 문집 권1, 45장 앞면(앞의 영인본, 267면).

39) "공자가 위 나라에서 경쇠를 두들겼는데, 삼태기를 메고 공씨의 문 앞을 지나가는 자가 듣고서 말했다. '마음을 둔 것이 있구나. 경쇠를 두들김이여!'"(子擊磬於衛, 有荷蕢而過孔氏之門者曰: '有心哉. 擊磬乎!'). 「헌문」(憲問) 제42장, 『논어』(論語). 이하 사서삼경 번역은 고전번역원 국역을 참고해 일부 수정했다.

40) "거문고 홀로 안고 옥계를 건너니, 달 밝은 맑은 밤에 낭랑하구나"(獨抱瑤琴過玉溪/琅然淸

보다 낮은 외직을 주로 역임하고 그 사이 파직도 당하여 은자와 같은 삶을 살며 제세(濟世)의 마음을 펼칠 수 없었던 삶을 회고한다. 마음의 지향과 실제 삶의 괴리를 읊은 데에서, 성현의 자취를 좇는 삶이 어디에서든 제세를 잊지 않고 사는 삶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조우인이 제세를 펼칠 수 있는 주요 관직을 역임하지 못한 전기적 사실을 통해 함련의 성찰이 온당히 이해되지만, 그는 바른 말을 서슴지 않는 방식으로나마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해 나갔다. 경련에서는 그것에 대한 성찰을 통해 자계를 다짐한다. 전구에서는 공자가 은거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한 마음을 드러낸 고사[41]를 활용하여, 이제껏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왔다고 고백한다. 이어 주역의 이(頤)괘에서 '산뢰'(山雷)라는 글자를 뽑아 매호정사에 붙여 남들에게 보임으로써 그것을 자계(自戒)하는 어휘로 삼는다. 군자는 산뢰를 듣고서 언어를 삼가며 음식을 절제한다[42]고 하니, 옳음을 추구했으나 시화를 겪고 파직을 당하며 매번 그것을 실천하기 어려운 데에 놓여 왔던 처지를 반성하며 앞으로의 자계하는 삶을 다짐하는 것이다.

함련과 경련에 걸쳐 그간의 삶을 술회하고 성찰한 후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세웠다. 작품에서 '迷'는 마음에만 제세 의식을 두고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 점, 때로는 마음이 너무 앞서 제세 의식을 실천할 수 없는 상황에 스스로 빠진 점으로 정리된다. 대립항인 '不迷'는 마음을 따라 행동도 제세로 나아가고, 때로 앞서 나가던 마음을 경계하여 그것을 언행으로 조화롭게 드러내는 것이 된다. 이러한 성찰과 다짐의 과정이 있어, 미련에 이르러 한밤에 꽃망울을 처음 터뜨려 향을 내는 매화 향을 맡으며 '흥'을 잃지 않는다는 표현을 통해 다짐한 삶을 지켜나가리라는 희망을 감각적으로 드러낸다. 이 작품에서 조우인에게 다른 삶, 더 이상 헤매지 않은 삶이란 피세은일이 아니라 강호에서도 사람과 더불어 살며 제세 의식을 지켜나가는 삶

夜月明時). 주희, <이빈로의 옥간시를 읽고 우연히 짓다>(讀李賓老玉澗詩偶成), 『회암집』(晦庵集) 권7.

41) "부자가 무연(憮然)히 있다가 말하였다. '조수와 더불어 무리 지어 살 수는 없으니, 내가 이 사람의 무리와 더불지 않고 누구와 더불겠는가?'"(夫子憮然曰: '鳥獸不可與同群, 吾非斯人之徒與?'). 「미자」(微子) 제6장, 『논어』.

42) "『상전』에 이르렀다. '산 아래에 우레가 있는 것이 이(頤)이니, 군자가 보고서 언어를 삼가며 음식을 절제한다'"(『象』曰: '山下有雷頤, 君子以, 愼言語, 節飮食'). 『주역』(周易).

인 것이고, 그것을 제2수의 끝에서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강호를 세속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조우인은 매호에 거주할 때 파직을 당하고 옥고를 치르면서도 벼슬을 제수받으면 마다하지 않고 현실 정치로 나아갔다.

<매호별곡>의 시적 상황이 매호에 복거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복거지를 경영하며 매호정사를 완성한 뒤에 창작한 칠언율시의 시적 상황은 <매호별곡>보다 시간이 일정 흐른 후임은 자명하다. 한시 작품에서는 피세은일을 거부하고 제세 지향을 명확히 드러내는 데에 반해 <매호별곡>에서는 은일의 관습적 양상에 대해 거리를 두고 세속을 인식하는 정도에 그친다. 곧 <매호별곡>에는 지향의 실체가 뚜렷하게 진술되고 있지 않다. 의식이 '迷'에서 '不迷'로 이동한다고 할 때 <매호별곡>은 과거의 '迷'에서 떠나 '不迷'로 다가서고 있지만 아직 그것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다 하겠다. 과거의 삶을 성찰하고 있지만 그 지향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매호별곡>의 화자는 '이렇게 저렇게 늙겠다'고 부정(不定)하게 선언하는 데에 그칠 뿐이고, 그 결과 작품의 결사가 1행의 결어로 이루어지는 형태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서 조우인이 '迷'와 '不迷'가 명확히 범주화된 상태에서는 한시를, 그렇지 않은 과정에서는 가사를 선택한 장르인식이 발견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매호별곡>은 매호 거주 이후 조우인이 앞서의 삶을 성찰하여 그것을 '迷'로 범주화한 후에 앞으로의 삶을 '不迷'로 범주화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놓인 작품으로 밝혀졌다. 조우인은 작품의 화자의 입을 빌어 자신의 제세 지향을 명확히 진술하고 있지 못했다. 그러나 선유를 즐기며 달빛을 배에 한껏 실어오지만 그 흥취를 잇지 못하고 결국 자신이 세속에 붙어 있다는 형상을 설정한 데에서 현실을 향한 의식의 단초가 발견된다. 화자는 일견 분주하거나 한적한 삶 모두를 부정하는 듯 보이지만, 피세은일의 삶에 거리를 두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서 <매호별곡>이 은일치사자가 매호의 승경을 예찬하며 그곳에서의 삶을 단순히 긍정하며 부른 노래가 아니라, 이주복거자가 새로운 정주지에서의 설렘과 기대, 고민과 성찰에 이르는 과정을 노래한 작품임이 밝혀진다. 나아가 <매호별곡>의 의식이 '不迷'를 완전히 범주화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는

www.kci.go.kr

점, 조우인이 인조반정 이후에 치사한 후 낙향하여 은자의 삶을 살았다는 점에서 <매호별곡>이 매호정사 건립 이전에 창작되었다고 조심스럽게 짐작해본다.

Ⅴ. 나가기

본고에서는 전기가사 작가로 주목된 조우인의 가사 작품 가운데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진 <매호별곡>에 집중했다. 조우인의 문집과 관련 기록을 폭넓게 취해 삶의 실상과 내면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했다. <매호별곡>은 아직 구성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장황하지만 작품을 차분히 순차적으로 읽어가며 구성을 아울러 밝히고자 했다. 그 결과 다음의 성과를 내었다.

첫째, <매호별곡>의 제재로 다루어진 매호 이주 시기를, 여러 자료를 상세히 검토하여 54세 전후로 논증했다. 이주 상한선은 가깝게는 1615년, 멀게는 1613년이며 하한선은 1616년이었다. 이로써 작품에 내재한 창작의식을 선행연구와 다르게 규명할 여지가 마련되었다. 이주 시기를 논증하는 가운데 조우인의 삶을 거주지에 따라 함창 거주기, 예천 거주기, 매호 거주기로 구분할 수 있었고, 매호 거주기를 시화로 인한 투옥기(投獄期, 1621~1623)를 기준으로 앞의 사환기와 뒤의 은일기로 나눌 수 있었다.

둘째, 본격적으로 분석되지 않은 <매호별곡>의 구성을 분석하고 일관된 해석에 이르렀다. <매호별곡>은 서사, 본사, 결사의 구성을 취하되, 본사가 본사1과 본사2로 나뉘고, 그 각각은 전단과 후단으로 구분되었다. 본사1(전단: 9행, 후단: 33행)과 본사2(전단: 7행, 후단: 35행)는 42행으로 길이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예비적 진술 성격을 띠는 전단은 짧게, 상대적으로 구체적 진술을 담은 후단은 길게 하여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도 유사했다. <매호별곡>은 행의 운용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짜임을 갖추고 시상이 유기적으로 전개되는 작품임이 드러났다.

셋째, 화자의 내면에 자리한 복잡한 마음의 원인을 여러 전기적 사실을 통해 밝히고자 노력했다. <매호별곡>에 명시에 버려졌다거나, 당우의 태평

www.kci.go.kr

성대에 늦은 몸이라거나 하는 데 내재한 복잡한 심리는 벼슬살이에 대한 불만, 집안 내력에 대한 위축된 심리라는 불우의식에서 형성되었다. <매호별곡>은 설렘, 기대, 반추, 다짐이라는 일련의 시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본사1에 잠재된 불우의식이 본사2에서 간간이 표출되고 있는 작품이었다.

마지막으로, 결사의 두루뭉술한 진술과 앞날의 모호한 지향을 창작의식의 층위에서 해명하고자, 매호에 복거한 이후 매호정사가 건립되었을 때의 심회를 담아 창작한 칠언율시 <호사가 새로 완성되어 보내드리다>(湖舍新成寄呈)와 <매호별곡>을 비교했다. 한시 작품에서 조우인은 과거의 삶을 '迷'에, 앞으로의 삶을 '不迷'에 대응시켜 피세은일을 지양하고 제세구민을 지향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매호별곡>에서는 '迷'에 대한 인식은 고민과 성찰을 통해 명확히 진술되지만, '不迷'의 실체는 뚜렷하지 않았다. 이로써 <매호별곡>이 성찰 후 앞으로의 삶을 '不迷'로 범주화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놓인 작품임이 밝혀졌고, 이것은 조우인에게 가사가 고민과 성찰의 과정에서 마음을 정리하는 장르로 인식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상의 논의로 <매호별곡>의 창작 시기가 매호정사 건립 이전, 곧 매호 복거기 가운데 투옥기 이전의 사환기라는 잠정적 결론에 이르렀다. <매호별곡>의 창작 시기가 적시된 자료가 발굴되지 않아 짐작에 그친 점이 아쉽다. 아울러 작품의 성격을 밝히는 데에만 집중하여 첫째, 조우인의 전반적인 가사 창작과 관련해 <매호별곡>을 다루지 못했다.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세 작품의 상세한 분석과 관련된 전기에 대한 폭넓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선행연구에서 조우인의 전기를 고찰할 때 취한, 이식이 지은 묘지명병서를 중심에 두는 자료적 편향에서 벗어나야 가능하다. 둘째, 앞선 연구를 바탕으로 17세기 전기가사라는 공시적 관점, 조선 사대부가사라는 통시적 관점에서 조우인의 가사 작품의 의의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것이 강호가사라는 내부에서도 꼼꼼하게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www.kci.go.kr

참고문헌

1. 자료

『이재영언』(조우인; 김봉선, 「이재 조우인 시가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영인).
『모당집』(홍이상, 한국문집총간 속6집).
『문월당선생문집』(오극성, 한국문집총간 속10집).
『(만력 16년 무자 2월 24일) 사마방목』(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고문서집성(古文書集成) - 부안 부안김씨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송암선생유고』(김면, 한국문집총간 속5집).
『양서선생문집』(이광윤, 한국문집총간 속13집).
『우계서당강회록』(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우복문집』(정경세, 한국문집총간 68집; 고전번역원 (역주) 『우복집』).
『창녕조씨취원당파보』(조규철 편, 오봉서당).
『촌은집』(유희경, 한국문집총간 55집).
『택당집』(이식, 한국문집총간 88집; 한국고전번역원 (역주) 『택당집』).
(함창현) 『항안』(1607년 편; 1748년 편).
『호옹유고』(조정융, 한국국학진흥원 영인본).

2. 논저

강경호, 「이재 조우인의 가사문학 연구」, 『영주어문』 11, 영주어문학회, 2000, 73~100면.
고경식, 「매호별곡과 자도사」, 『자유문학』 49(제6권 4호), 한국자유문학자협회, 1961, 247~251면.
_____, 「關東續別曲」, 『경희문선』,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62, 142~144면.
_____, 「조이재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3.
_____, 「관서별곡과 출관사」, 『국어국문학』 36, 국어국문학회, 1967, 51~57면.
_____, 「송강과 조이재의 관계」, 『국어국문학』 64, 국어국문학회, 1974, 2~95면.
구영완, 「정송강과 조이재 가사문학 연구」,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김기영, 「이재 조우인의 관동속별곡 연구」, 『어문연구』 30, 어문연구학회, 1998, 51~71면.
김기탁, 「매호별곡의 자연배경고」, 『한민족어문학』 22, 한민족어문학회, 1992, 5~32면.
김봉선, 「이재 조우인 시가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김영만, 「조우인의 가사집 「이재영언」」, 『어문학』 10, 한국어문학회, 1963, 78~97면.
박억만, 「이재 조우인 가사문학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www.kci.go.kr

박연호, 「장르론적 측면에서 본 17세기 강호가사의 추이」, 『어문논집』 4, 민족어문학회, 2002, 155~193면.
박이정, 「17세기 전반기 가사 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이재준, 「이재 조우인의 가사에 나타난 공간인식과 그 의미」, 『우리어문연구』 42, 우리어문학회, 2012, 213~245면.
정태형, 「이재 歌辭 硏究 松江歌辭와 比較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최규수, 「<출새곡>과 <속관동(별)곡>의 작품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 『온지논총』 5, 온지학회, 1999, 23~46면.
한석수, 「조우인의 가사연구」, 『논문집』 20, 상주농잠전문대, 1981, 199~208면.
황동권, 「이재 조우인의 삶과 현실인식」, 『제118차 대동한문학회 전국학술회의, 2016년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대동한문학회, 2016, 95~112면.

www.kci.go.kr

Cho Woo-In's time in Maeho and his literary work: *MaehoByeolgok*

Shin, Hyun-Woong

This paper examined Cho Woo-In's time in Maeho and his literary work: *MaehoByeolgok*(梅湖別曲). Maeho is the lake at Sangju-si(尙州市) in Gyeongsang-buk-do Province(慶尙北道). Cho Woo-In(曺友仁, 1561～1625) wrote *MaehoByeolgok*, the poetic speaker of which expresses his excitement and impressions for coming and living at Maeho.

First, the time to start living at Maeho was examined. It was known that the time was 1623 CE, but it was inferred that he set up house there before 1616 and wrote *MaehoByeolgok* provisionally before 1620 from his other works and the materials for him.

Second, it was analyzed that *MaehoByeolgok*'s composition is well organized and its poetic sentiment unfolds in a natural way. The sentiment starts from the excitement and goes through the expectation, the self-examination, the rumination, and reaches to the promise.

Lastly, examining his consciousness for being emotionally deprived and the depression in *MaehoByeolgok*, it was found that it had derived from the dissatisfaction for his official life, negatively thought for his family, etc. As a result, that means *MaehoByeolgok* was the work of making up mind for him, and he regarded the Gasa as the genre, which expressed the worries and self-examination for his life.

Keyword: Middle Joseon Dynasty(朝鮮中期), 17th, Gasa(歌辭), emotionally deprived(不遇意識), Yeongnam area(嶺南), Sangju(尙州), Namin(南人).

접수일자: 2017. 3. 31.
심사기간: 2017. 3. 31.～2017. 5. 10.
게재결정: 2017. 5. 10.

www.kci.go.kr